

화순 이질 확산 '비상'

수련회 참석자와 접촉 주민 2명 2차 감염

전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화순군 모 연수원에서 열린 한 종교단체 수련회 참석 집단설사 환자에 대한 가검물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정모(72·여·화순군)씨 등 3명이 세균성이질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련회 참석자 가운데 100여명이 집단설사 증세를 보인 것(본보 19일자 3면)과 관련 도내 거주자 355명을 비롯한 423명에 대한 가검물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정씨를 제외한 2명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2차 감염자로 드러나 추가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폭력시위에 최루액 분사 검토

경찰이 향후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최루액을 분사하고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담은 집회시위현장 부상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향후 집회 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살수차 4대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살수차는 모두 9대다.

경찰은 또 최루액이 담긴 개인용 분사기를 일선 진압부대에 지급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시위 대응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방어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화염병이 등장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격적 진압 대책안을 내놓아 또 다른 악순환을 유발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니킵 켈리 질식사' 국가·수입사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정수 부장판사)는 21일 대만산 수입켈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 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와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4천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킵 켈리를 먹는 연령층은 주로 어린이인데 이들에게 성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도 이 사고가 난 같은 해에 미니킵 켈리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업자에 의존해 켈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안 停電 대란 '예견된 사고'

3년 전에도 같은 피해... 한전 '팔짱'

새 송전선로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

신안군 대규모 정전사고(본보 21일자 6면)의 원인은 크레인 선의 운항 미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한전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건설된 지 25년이 넘는 '신안 송전선로'는 3년여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전 측은 아직껏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재연된 사고=지난 20일 선박 인양 크레인 선 '현대9001호'(1천 827t)에 의해 절단된 고압 송전선로('신안 송전선로' 중 당사도~암태도 지점)는 지난 2003년 3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대형 선박 인양 크레인이 고압전선 중 1개를 끊는 바람에 신안군 1만9천여 가구가 정전됐었다.

지난 1979년 건설된 '신안 송전선로'는 무안 운남변전소~신안 안좌변전소 53.578km를 연결하고 있으며, 신안군 14개 면 중 9개 면에 전기를 공급하는 '동맥'같은 곳. 섬과 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높이는 최저 27.4m(매화도~나비섬)에서 최고 64.3m(소암도~소기점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높이 50m가 넘는 대형 크레인 선이 등장하면서, 송전선로는 언제든지 절단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고 당시 '현대9001호'의 크레인 높이는 51m

였으며, 당사도~암태도 송전선로는 31.4m에 불과했다. ◇제대로 가동 안 된 비상용 발전기=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한전 전남지사



고압전선이 절단된 '신안 송전선로'. 앞쪽이 당사도, 뒷쪽은 암태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헬기조종=목포해경 김현석 경위

신안지점에는 송전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5기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최대 발전용량이 1만1천kWh인 이 자가발전기는 사고 직후 6천kWh의 전

력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해도 2천여 가구에만 전기가 공급됐을 뿐, 나머지 가구는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했다. 한 가구의 1일 평균 전력 소요량이 3~5kWh인 점을 감안하면, 자가발전기가 제대로 가동됐을 경우 1천~2천 가구에 추가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전 대책=한전은 오는 2009년에야 새 송전선로의 건설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송전선로를 높여야 하거나, 진도변전소와 신안 안좌변전소를 연결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남지사 관계자는 "선로의 높이는 해양수산청에서 권고한 높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은 21일 '현대9001호' 선장 김모(56·부산시)씨를 업무상 과실 및 전기공급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남·이상휴·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신안군 대규모 정전사고로 양식 전어와 새우 400만 마리를 모두 잃은 김재용(42·신안군 자은면 유각리)씨가 배를 허영게 드러낸 채 떠오른 전어를 바라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신안 지은면=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停電 대란' 신안 섬마을

양식장은 폐사한 '물고기 바다'

주민들 마실물조차 없어 아우성

'허영게 떠오른 채 썩고 있는 전어와 꽃게, 마실 물을 구하려 다니는 주민들...'

전기가 끊긴 섬마을은 하룻밤 새 죽은 양식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아우성장으로 변했다.

21일 오후 2시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백길부락 김재용(42)씨의 '전어·새우 양식장'. 2만4천평의 너른 양식장은 폐사한 전어들이 풍기는 악취로 뒤덮여 있었다. 물 속 깊은 곳에는 죽은 새우가 어룡거렸다.

신안군 대규모 정전사건으로 김씨는 자식처럼 키우던 전어와 새우 400만마리를 모두 잃었다. 시가로는 13억원. 김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어장

에 산소를 공급하는 수차 27기가 갑자기 모두 멈췄을 때만 해도 '잠깐 정전된 것이겠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차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어장 해수(海水)의 산소 농도가 3ppm 이하로 떨어졌다. 새우는 3ppm 이하면, 전어는 2.5ppm

이하면 집단 폐사한다. 김씨는 그제야 어장에 있던 양식관리선(0.5t) 2척에 시동을 걸었다. 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산소가 조금이라도 물 속에 유입되지 않을까하고 밤새 프로펠러를 돌렸지만, 허사였다.

같은 마을 문장업(46)씨는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은 안 돌아도 좋지

만,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어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자은면은 지하수를 펌프로 퍼올리는 '간이상수도' 방식이어서, 전기가 끊기자 물도 나오지 않게 됐다. 문씨는 아침에 쌀 씻을 물을 구하기 위해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사정했지만, 얻지 못해 굶어야했다.

신안군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새우 2천330만마리(양식장 15개소) ▲전어 25만마리(1개소) ▲꽃게 15만마리(1개소)가 각각 정전으로 폐사하는 등 53억6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4천여 세대에 아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신안=조완남·이상휴·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외제차 대리점 사장 경찰·시민 폭력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Y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포장마차 손님 조모(32)씨와 출동한 경찰관 이모(38) 경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명 외제차 대리점 사장 마모(43)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N건설사 회장의 장남인 마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너편 길가에 세워둔 렉스스 승용차에서 전조등을 켜고 있다가 이를 항의하는 조씨와 출동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무지구대 소속이 경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수차례 무면허로 적발된 마씨는 경찰에서 "차 안에서 담배를 찾기 위해 라이트와 시동을 켜는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연예저널리스트 대주 피오레 1,300여 세터 중 35명만 353444 문의 (062)366-4220

◇시사만화 '나원참'과 '光日만평'은 작가의 휴가로 쉽니다.

Advertisement for dental health. Text: "아름다운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A beautiful smile starts from healthy teeth). Includes logo for Kwangju Area Stomatological Society and a list of 10 tips for oral health.